



잘될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 본회 자육 우수사슴선발대회 개최, 4월말까지 신청 접수 -

외국에서나 실시되던 자육 첫뿔에 대한 우수사슴선발대회가 올해부터 본회 주최로 실시된다.

자육 첫뿔에 대한 우수사슴선발대회는 나이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을 미리 점쳐볼 수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나 미국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돼 온 행사다.

올해부터 본회에서 실시될 자육 첫뿔에 대한 선발대회는 지역예선제를 도입, 각 지역 지회에서 최초 우열을 가리고 여기서 선발된 한두마리의 자육이 중앙

회에서 실시될 본선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받는다. 단 지회가 없는 지역의 참가희망자는 중앙회에 직접 신청, 현장 심사를 거치면 된다.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품종은 꽃사슴과 엘크 2종류다.

심사요건으로는 녹용의 무게, 외관, 좌우대칭, 상대비율, 회분율, 사슴의 외모, 체장, 체고 등이다.

우수사슴으로 선발된 사슴에 대해서는 본회에서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된다. 우선 본회에서 선발된 우수사슴임을 증명하는 이표를 장착하게 되고 사슴의 이



▲ 자육 첫뿔은 무게, 모양새, 회분, 상대비율등 총 10여가지가 넘는 항목에서 자육을 겨루게 된다.

동시에도 어느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받게 된다. 또한 매년 녹용 생산능력도 철저하게 기록에 남겨 체계적인 육성과 개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가 첫 대회인 만큼 선발 사슴에 대한 특전도 다양하다. 대상으로 선발된 사슴은 수상 직후부터 2년 동안 사슴 전용사료 및 영양제를 지원



받게 된다. 또한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슴은 트로피와 함께 년 1회 사슴 전문 수의사의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선발된 모든 우수사슴은 향후 성록에 대한 우수사슴선발대회시 예선 없이 본선에 직행할 수 있는 특전을 받으며 본선에서도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된다. 더불어 협회 우수사슴으로 등록, 사슴 질병이나 기타 문제 발생시 공인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특전과 상품이 올해 선발될 자록 우수사슴을 기다리고 있다.

농가에서도 자록 우수사슴선발대회를 반기는 분위기다. 소백지회의 한 회원은 “나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5회 절각에 15kg을 생산한 사슴과 10회 절각에 16kg을 생산한 사슴을 비교할 때 5회 절각 사슴의 향후 발전 가능성이 더욱 클 것”이라며 “자록 우수사슴선발대회를 통해 선발된 사슴을 협회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나이를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는 한국의 대표 종족으로 양성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3월31일 충북 보은에 위치한 농장에서 자록 선발대회에 출전할 사슴의 현장 심사가 최초로 진행됐다. 2000년 본회 우수사슴선발대회에서 우수사슴으로 선발된 사슴의 자록이라고 밝힌 이 사슴의 첫뿔은 이른 절각에도 불구하고 무게 및 외관, 녹용 상태 등이 우수해 올 자록 선발대회가 상당히 치열할 것임을 예고했다.

자록 우수사슴선발대회 신청 접수는 4월말까지며 지회가 있는 지역은 지회에, 지회가 없는 지역은 중앙회에 직접 전화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양육**



▲ 사진은 지난해 우수사슴 선발대회 장면